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학술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Academic Librarians' Experiences of Predatory Journals

홍명아 (Myoung-A Hong)*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초록

부실 학술지의 확산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학계의 여러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여전히 부실 학술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 학술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실 학술지 문제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경험을 가진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고, Giorgi, A. (1970)의 현상학적 분석과 해석적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경험은 11개의 의미구조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심층적으로는 사서들이 인식하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이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서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기 계발 전략을 사용한 반면, 정체성이 혼란을 느낀 사서들은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실용적인 전통 업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실 학술지 문제를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적 가치와 연결 지어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도서관의 미래 서비스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Despite the efforts of the academic community to solve predatory journals, the problem of predatory journals persists.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issue, collabo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predatory journal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one of the key stakeholders in the predatory journals issue: Academic Librarians. To achieve th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academic librarians who had experience regarding predatory journals. The narratives were analysed using Giorgi's (1970) methods of phenomenological analysis and interpretive narrative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academic librarians' experiences regarding predatory journals were organized into 11 categories of meaning structure. In-depth analyses show that the librarians' perceived identity as subject specialis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sition of the predatory journal service. Librarians with a strong professional identity as subject specialists were more likely to provide predatory journal services based on greater responsibility and mission, and to adopt strategies for self-improvement. In contrast, those who felt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as subject specialist were more likely to provide predatory journal services passively or to focus on pragmatic traditional library work.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explore the issue of predatory journals in relation to the professional values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whi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service design in libraries.

키워드: 부실 학술지, 대학도서관 사서, 대학도서관 서비스, 현상학적 연구, 학술커뮤니케이션
Predatory Journals, Academic Librarian, Academic Libraries Service, Phenomenological Research, Scholarly Communication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sw0579@naver.com / ISNI 0000 0005 0846 806X)
논문접수일자: 2025년 1월 19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2월 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59-85, 2025. <http://dx.doi.org/10.4275/KSLJS.2025.59.1.059>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OA(Open Access, 이하 OA) 출판 모델의 등장에 따라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논문출판비용)을 악용한 부실 학술지는 출판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환경에 있는 연구자들을 혼혹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확산에 따라 학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부실 학술지는 동료 심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학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전전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일찍이 2010년도부터 Jeffrey Beall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가 부실 학술지 문제를 경고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도구(Teixeira da Silva, 2013), 리스트 게시(Beall, 2015), 체크리스트 개발(이은지 외, 2020) 등의 여러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실 학술지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가짜 논문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형태(paper mills)로 진화되기에 이르렀으며(Bouter, 2024), 일각에서는 부실 학술지가 ‘정말로’ 부실한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Crosetto, 2021; 남기곤 외, 2023).

이렇듯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혼란 속,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 학술지를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IAP, 2022).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Cohen et al., 2019; IAP, 2022; Kurt, 2018; Mertkan et al., 2021), 부실 학술지 문제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특히 부실 학술지 판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대학도서관 사서는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는 데 최소한의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Zhao, 2014) 연구자들

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Wiratningsih, 2018). Kurt(2018) 또한 사서들이 학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부실 학술지에 출판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서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해외에서도 소수이며(Aboyade et al., 2024; Buitrago-Ciro & Bowker, 2020; Buitrago-Ciro, 2022; Wiratningsih, 2018),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에도 사서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계량적으로만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홍명아, 심원식, 2024b).

IAP(2022)는 부실 학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또한 부실 학술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학술지 논란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부족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과 이로부터 발생한 인식수준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의심 학술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2024b)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한국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에 대해 가진 다양한 인식 수준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사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도서관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부실 학술지의 문제와 이해관계자로서의 도서관

부실 학술지란 출판윤리를 지키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면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를 뜻한다 (이효빈 외, 2019). 일반적으로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경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지만, 승진과 연구비 지원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남기곤 외, 2023).

부실 학술지는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나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처럼 단순히 연구자만의 문제로 간주되기 쉽다(IAP, 2022). 그러나 실제로는 학술출판 시스템 전체에 걸쳐 출판사, 연구기관, 대학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학도서관은 부실 학술지 기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Zhao, 2014)와 조언(Elmore & Weston, 2020)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부실 학술출판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과(Buitrago-Ciro & Bowker, 2020)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IAP, 2022).

그러나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한계점도 명확하다. 예를 들어 Aboyade et al.(2024)은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특성상 사서가 사실상의 일반 연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점과, Wiratningsih(2018)은 사서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적으로 다수의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Buitrago-Ciro(2022)의 연구와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홍명아, 심원

식(2024b)의 연구가 전부다.

한국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부실 학술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홍명아, 심원식(2024b)에 따르면,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사서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제공의 준비 수준 또한 보통(3점)보다 낮은 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정보 전담 사서의 부재와 전문 서비스 부족에 기인하며, 다시 말해 한국은 부실 학술지 서비스의 근본이 되는 주제전문서비스 조차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장덕현, 2015).

대학도서관은 OA 기반의 변화된 학술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정경희, 2012), 주제전문서비스를 통해 교수진을 지원 가능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Brantley et al., 2017). 하지만 한국의 연구지원서비스는 학술정보 교육 및 홍보, 참고문헌 관리 등의 기초적인 수준으로, OA 학술지 평가 및 투고 학술지 관련 조언처럼 심화 서비스는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김순, 2019). 따라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연구지원서비스 기반이 아직은 미비한 상황으로 확인된다.

2.2 연구지원서비스와 사서의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

앞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연구지원서비스의 기반이 취약하여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에서 인식하는 사서의 이미지와 실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이미지 간에 존재하는 큰 편차가 인식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호

신, 2012). 인식은 단순히 타인의 행동 이해를 넘어 공동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Knoblich, G. & Sebanz, N., 2006). 문제는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 구성원은 여전히 도서관 사서를 단순한 기능적 또는 비전문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남영준, 김희선, 2012). 최예진 외(2023)는 대학 내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자료 지원 부서로 인식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2024)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자신의 업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조직 내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음을 호소했고, 대학도서관이 마치 ‘한직’처럼 다뤄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교수진이 도서관의 연구지원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Brantley et al., 2017), 도서관이 학술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지원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Klain-Gabbay & Shoham, 2018). 최홍식(2012)도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를 인력 낭비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용자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사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인식은 사서들의 정보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시영, 2010). 일찍이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었던 2000년대부터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과 더불어 사서들에게 더 큰 딜레마와 불안함을 가져다주고 있다(이선애, 2024). 그럼에도 사서들은 여전히 전문성을

강화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노영희, 심효정, 2023). 김갑선(2012)은 사서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등의 업무전략, 본분에 충실했면서 때를 기다리거나 설득하는 등의 대인 관계전략, 슬럼프나 위기 시 실용적 측면을 생각하는 슬럼프 및 위기 대응전략, 부단히 자기계발하고 나태함을 경계하는 개인성장 및 발전도모 전략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 부실 학술지 서비스 관련 경험을 포함한 연구지원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부실 학술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분석 및 해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부실 학술지라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경험, 이로부터 비롯된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내러티브 분석을 함께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란 경험이 발생하는 맥락 내에서 현상이 경험되는 방식을 포착하는 방법을 뜻한다(Giorgi & Giorgi, 2003).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그들의 관점에서 표현하는데 효과적이며(Lester, 1999) Giorgi, Colaizzi, Van Kaam, Van Ma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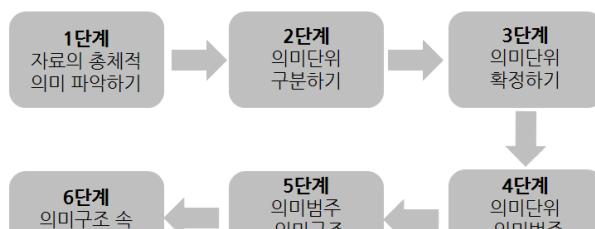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다(김분한 외, 1999). 본 연구는 이 중 Giorgi, A. (1970)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Giorgi, A. (1970)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의 단계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자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 의미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단위로 구분해 부분적 의미를 이해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구분된 의미단위를 비교분석하며 의미단위를 확정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앞단계에서 확정된 의미단위를 연구참여자가 속한 학문세계의 용어를 활용해 이론적 의미 범주로 표현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범주를 활용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구조를 기술한다(유기웅 외, 2012).

순수한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만 허용하며 현상의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Giorgi, 1997). 그러나 질적인 연구에서는 해석이 필수적이며(Langridge, 2007), 현상학적 연구에 해석적 차원을 추가할 경우 정책 제안을 위한 정보 제공처럼 실용적인 이론의 기초로도 활용 가능하다(Lester,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포착하되,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해석적인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해석적인 내러티브 분석 방법은 내러티브에서 패턴을 찾고, 개별 내러티브의 패턴을 다른 텍스트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법으로써, 기존 이론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선택적으로 부각 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이론을 뒷받침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McQueen & Zimmerman, 2006). 또한 이러한 질적연구에서의 해석적 분석은 단순히 무엇이 의미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의미들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이해를 탐구하는데도 효과적이다(Gubrium, J. F. & Holstein, J. A., 1997).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발견한 의미구조에 해석적인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경험 속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그들의 경험이 근무 환경, 현실적 문제 등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참여자들이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인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Giorgi, A. (1970)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과 해석적 내러티브 분석 방법 조합에 따른 연구 분석 및 해석 단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분석 및 해석 단계

3.2 연구참여자 선정

해석적 내러티브 분석은 현상에 대한 발견보다는 현상의 해석을 중시하는 만큼, 연구 주제에 대해 가장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 기준, 또는 사례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McQueen & Zimmerman, 2006).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부실 학술지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질적 연구에 참여를 원하는 사서를 1차적으로 응답받았다. 이후, 이들의 학력, 경력, 근무지 등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한 뒤, 부실 학술지 관련 경험이 있으며 근무 환경(대학 소재지, 대학 종류 등)이 상이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목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 도서관은 일반 대학 도서관에 비해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홍명아, 심원식, 2024b), 실제로 부실 학술지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의과대학 사서들을 포함하여 표집하였다.

또한,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경험 기준은 직접적인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경험뿐만 아

니라,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간접적인 경험도 포함하였다. 이는 대학도서관에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가 미흡한 현실과, 사서들 사이에서도 부실 학술지 관련 업무가 도서관의 업무로 인식되지 않는 등 다양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홍명아, 심원식, 2024b). 최종적인 연구참여자는 〈표 1〉과 같다.

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한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 5명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 된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지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하였다. 특히, 부실 학술지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Buitrago-Ciro(2022)의 연구뿐이었기 때문에, 부실 학술지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을 다룬 Kurt(2018), Cohen et al. (2019)의 연구도 참고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4개의 영역을 살펴보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담당 업무는 무엇인가, 두 번째, 부실 학술지 관련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경험은 어떠한가, 세 번째, 부실 학술지와 관련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로서의 대처는 어떠한가, 네 번째, 부실 학술지 논란이 학술생태계

〈표 1〉 심층면담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최종학력	근무 경력	대학소재지	대학 구분	부실학술 서비스 제공
1	남	30대	학사	8년	수도권	일반종합대학	×
2	여	40대	박사	13년	비수도권	일반종합대학	×
3	여	30대	석사	3년	비수도권	연구중심대학	△
4	남	40대	학사	10년	수도권	의과대학	○
5	여	40대	석사	24년	비수도권	의과대학	○

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면담은 참여자의 선호방식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2024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은 최소 100분에서 120분 가량 소요되었다.

3.4 윤리성 고려 및 엄격성 확보 전략

모든 연구참여자는 면담 전 세부적인 질문지와 함께 연구의 목적, 연구 참여 중단 가능성은 포함한 설명을 담은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설문지 및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검토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또한, 면담 전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녹화 또는 녹음을 해도 괜찮은지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녹취를 진행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모두 전사되었으며 참여자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형을 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여러 전략을 실시하였다(Padgett, D. K., 1998). 첫째, 제2장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사서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관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 다원화(Theory Triangulation)를 사용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사서들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나, 도서관의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한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이시영, 2010; 김갑선, 2012; 이호신, 2012; Brantley et al., 2017; Klain-Gabbay & Shoham, 2018; 최예진 외,

2023; 이선애, 2024). 이러한 관점들은 사서들이 직면한 정체성의 딜레마와 부실 학술지 서비스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연구 결과 초안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제공한 후, 그들이 직접 검토하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재검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질적인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넷째, 감사자료(Audit Data) 확보를 위해 녹취록을 전부 전사하여 기록으로 보관하였으며, 연구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및 범주화를 통한 의미 단위 도출 과정도 모두 철저히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Giorgi, A. (1970)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로부터 277개의 의미 단위를 확정하였고, 확정된 의미 단위로부터 11개의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의미범주는 〈표 2〉와 같다.

4.1 의미 하위 범주 진술

4.1.1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사서의 역할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지원 또는 연구실적 업무를 담당하며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표 2〉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학술지 관련 경험의 의미 범주

의미 범주	하위 범주
1.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역할 인식	1.1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사서의 역할 1.2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연구지원서비스로의 전환 1.3 업무영역의 모호성에 따른 역할의 한계
2. 노력 대비 얻는 서비스의 효용성	2.1 부실 판별 기준의 모호함 2.2 열정과 부담감 사이의 딜레마 2.3 조력자로서의 서비스
3. 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미래 서비스로서의 가능성	3.1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로서의 가능성 3.2 사서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 3.2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원정책
4. 학술생태계에 울리는 경종	4.1 부실 의심 학술지의 범람과 동료심사의 변화 필요성 4.2 앞으로 학술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부실 학술지 문제가 출판하지 않으면 도태되는(Publish or Perish) 학계에서 실적 압박을 받는 연구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Kurt, 2018), 이러한 실적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도서관의 연구지원 및 연구실적 업무 수준은 대학 구성원들이 사서를 연구파트너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Klain-Gabbay과 Shoham(2018)은 교수진이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사서의 역할을 자료 구매 및 접근에 한정하고, 학문적 기여를 도서관의 업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들 또한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며,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책만 다루는 이미지가(윤명희, 2020) 사서의 연구파트너로서의 인식을 방해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참여자(참여자 1, 2, 3)는 이로 인해 ‘도서관은 모른다’라는 편견이 발생, 이로부터 연구지원서비스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남영준, 김희선, 2012).

사서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문의했던 것도 팀장님이나 사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될 거다.라고 연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팀장님들은 사서가 책만 나르는 줄 알지 이런 업무를 하시는지도 몰라서 연구지원팀 또는 교무팀 이런 데 문의를 했을 것 같아요. (참여자 3)

한편, 부실 학술지 관련 업무가 활성화된 도서관들(참여자 4, 5)은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및 소통함으로써 라포를 형성(장덕현, 2015), ‘도서관이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이란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 경우 교수진들이 도서관에 매우 신뢰를 가져 아주 쉬운 정보도 도서관에 문의했으며, 연구실적 관련 문의조차 연구처에서 다시 도서관으로 문의하기도 했다. 참여자 5는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진이 사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상호 신뢰가 쌓였다고 설명했다(최예진 외, 2023).

오랫동안 일관되게 서비스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렸던 거. 연구성과에 도움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느끼신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지원자로서 인식하는) 부분도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5)

이러한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수진의 전문성 인식이 강화될수록 부실 학술지 업무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아직도 외부에선 도서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호신, 2012).

참여자 4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이 먼저 다른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관 내부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면 외부에서는 도서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게 되므로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 이었다.

이슈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 먼저 공유해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서관이 이런 데 관심이 있었네?’라며 연락이 오고, 서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4.1.2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의 연구지원 서비스로의 전환

한편,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도서관의 태도도 연구파트너로서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 대학도서관의 경우(참여자 1, 2) 상사들이 연구지원 업무 자체를 도서관의 업무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예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 수행도 버거운

상황이었다(김순, 2019). 학교의 연구자들 역시 연구를 많이 하지 않거나, 실적을 위해 단기간에 도출 가능한 연구성과물에 집중하는 연구자가 많은 만큼(김용환 외, 2022) 도서관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사회 혹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서 대출, 기기 지원 등의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학술지 업무와 같은 특수하고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안은, 의견 개진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기존의 업무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김갑선, 2012).

관심이 많지 않아요. (부실 학술지 문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요. 이전에 다른 직장 다녔을 때는 사서 선생님이 관련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벼려진 느낌이에요. (참여자 1)

반대로 연구지원서비스가 활성화가 된 도서관의 경우(참여자 3, 4, 5) 팀장이나 관장급의 상사들이 전통적 도서관 업무를 넘어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서들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권장 받았으며, 대학의 활발한 연구환경 또한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참여자 4, 5) 생명과 직결된 특성상 (Wallace, 2019) 연구자들은 도서관이 수준 높은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길 요구했다. 이와 같은 상사들의 지원과 연구자들의 요구로부터 도서관은 새로운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부실 학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처음에 기관장께서 ‘도서관에서 책이나 빌려주고 상호대차하고, 기본적인 역할에서 그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5)

4.1.3 업무영역의 모호성에 따른 역할의 한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부실 학술지 관련 업무는 크게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혹은 연구윤리 확립지원에 속하며,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이용재, 이지욱, 2020). 또한 대부분의 연구윤리 업무는 주로 산학협력처, 교무처 또는 연구처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한국연구재단(NRF), 20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34호)에서도 산학협력단과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이 부실 학술지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다른 부서 업무의 침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부실 학술지 관련 업무가 연구실적 평가처럼 연구업적 관리 업무와 연관되는 것도 업무영역을 더 모호하게 만들었다. 일부 참여자(참여자 1, 2)는 과거 도서관이 연구업적 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도 도서관 고유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다며, 부실 학술지 업무는 더 큰 내부 반발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참여자 2는 도서관 내부적으로 연구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실 학술지 업무를 도서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가 연구윤리 및 연구실적 담당 부서로부터 연구실적의 정확성 검토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부실 학술지 판별이 도서관, 연구처, 산학협력단 등 어느 단독 부서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서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참여자 3, 4)는 도서관의 부실 학술지 업무 제공이란 다른 부서의 업무를 침범하는 행위가 아니라, 해당 부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학술지와 관련해) 연결된 팀이 많아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애매한... 다른 팀의 역할을 침범하는 건 아닌가.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참고해라, 정도가 생각나네요. (참여자 3)

4.1.4 부실 학술 판별 기준의 모호함

우선 참여자들은 부실 학술지의 다양한 특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한 특징은 ‘형식적인 동료심사’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부실 학술지를 ‘형식적인 동료심사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쉽게 출판해 인정받는 OA 학술지’로 인식했다. 또한 과장된 IF 등 명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도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참여자 2, 3)는 부실 학술지를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학술지가 퇴출되고 새로운 부실 학술지가 등장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사무 보조자 수준으로 인식되는 사서(이시영, 2010)가

이를 주도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참여자 3은 부실 의심 출판사(MDPI)에서 자관 연구자들이 게재한 논문을 체크리스트로 검토했으나, 빠른 동료심사 외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부실 학술지의 체크리스트조차 부실 여부를 확실히 판별하기 어려움을 시사하며, 사서가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높은 전문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참여자 1은 관련 교육도 받지 못한 사서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느냐며 한계를 지적했다.

'WOS에서 검색되면 정상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어느 순간 퇴출되더라구요. 그러니까, WOS 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까지는 알았어요. 다만 이렇게 암도적 다수는 아니니까 아직은 확인만 하면 되는 수준이고. 내가 (부실 학술지 판별에 관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련 소양이나 교육을 받진 못했기 때문이요. (참여자 1)

따라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외부 기준을 통해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였다. 주로 S2journal이 언급되었으며, Beall's list나 SAFE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덜 활용되었다. 단 S2journal에 대한 신뢰도는 참여자마다 달랐는데 S2journal 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참여자 1),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사서가 있었다(참여자 5).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외부 기준에 비해 S2journal의 신뢰도가 높았다(참여자 1, 3, 4). 이는 S2journal이 SCI, ESCI, A&HCI, Medline, 심지어 KC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기 때문에(Yi, 2017), 부실 학술지 판별기준에 있어 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 중국 과학 조기경보원이나 Novel-X와 같은 자료도 참고되었다(참여자 3, 4).

대표적인 부실 학술지 리스트 상용 DB인 Cabells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여자(참여자 2, 3)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Dony et al., 2020), 추가적인 근거로서 활용 가능성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1, 5). 다만 모든 참여자가 전제하는 것은 단일 기준으로 부실 학술지를 판별함은 불가능하단 것으로서,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1.5 열정과 부담감 사이의 딜레마

부실 학술지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는 사서 개인의 열정이었다. 부실 학술지 업무가 활성화된 도서관은(참여자 3, 4, 5) 새로운 업무 제공에 적극적이었고, 대학 내에서 유후 인력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었다. 참여자 5는 자신의 역할을 '이용자가 문의하면 뭐든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업무는 항상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사서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보였다(김갑선, 2012). 혹은 참여자 1처럼 현재 부실 학술지 업무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서라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해(노영희, 심효정, 2023) 나중에라도 부실 학술지 관련 업무를 하길 원하는 열정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은 모든 사서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부실 학술지 업무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학습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가 정량적으로 평가되거나 보상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Brantley et al.(2017)은 대부분의 사서들이 연구자 지원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고도 기꺼이 수행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정 부족은 직무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참여자 3은 이와 관련한 양가적 감정을 표현했다.

공부 욕심도 있고, 학교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려려면 이런 것들을(연구지원 업무 등)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일이나 많이 생기지... (참여자 3)

연구지원서비스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정받지만(이용재, 이지숙, 2020), 사서가 충분한 이해 없이 접근할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성이 높다. 참여자 2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업무만 하기에도 바쁘고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연구지원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본인 연구 분야니까 연구자들이 더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요. 그러니 교수님도 모르는, 더 최신의 정보가 담긴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시죠. 하지만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사서 개인이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참여자 2)

또한 한 두건의 요청 정도는 처리 가능하지만, 요청량이 증가하면 사서의 업무량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속에서는 추가 인력 확보도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

었다(이선애, 2024). 실제로 참여자들(참여자 3, 4, 5) 역시 현재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의가 적은 편인데다가, 시급성이 있는 업무도 아님을 언급했다(참여자 2, 3).

한편, 의과대학 사서들의 경우(참여자 4, 5) 의학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이혜영, 2023)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보’ 제공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실 학술지 업무의 핵심은 누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았다. 특히 모든 사서가 이러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험을 감수할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부실 학술지 업무는 사서 개인의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업무라는 점을 인정했다.

4.1.6 조력자로서의 서비스

부실 학술지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자 4는 결국 사서의 부실 학술지의 업무란 ‘정확한 정보 전달’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Wiratningsih, 2018) 다양하지만 정확한 사실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에게 ‘권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때의 정보 제공 시 부실 의심 학술지로 판단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두 가지의 양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균형 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es or no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enseors 저널이 조기경보원에 떴어요. ‘현재 IF가 괜찮고 SCI에도 계속 있었고, 많은 저자가 출판하고 있었다. 근데 경보가 떴다. 커뮤니티에

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다'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결론은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실인 '조기경보원은 떴다. 근데 연구자들은 투고하고 있다.' (양방향적인) 2가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자가 고민을 스스로 하겠죠. (참여자 4)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참여자(참여자 1, 2)도 사서의 역할은 객관적인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며, 최종 판단은 연구자나 연구실적을 관리하는 부서의 몫이라고 말했다. 즉, 참여자들 모두 부실 학술지 서비스에 있어 사서의 역할이 연구자들이 부실 학술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의 역할(이호신, 2012)'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력자의 역할'은 부실 학술지 업무에 있어서 부담 수준을 완화 시켜주었다. 그러나 조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위험(Teixeira da Silva & Tsigaris, 2018)이 수반되는 만큼, 다소의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했다.

명확하게 답변을 안 드리니까 부담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아요. 그래도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마냥 쉬운 업무는 아니죠. 답변하고 나서도 '더 알아볼 방법이 없었나' 고민하고요. 조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꼼꼼하게 봐야되니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업무냐 하면 부담스럽긴 한 업무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4.1.7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로서의 가능성

참여자들은 모두 도서관의 역할이 과거의 전

통적인 대출반납 및 수서에서 변화했음을 체감하고 있었고, 연구지원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도 느끼고 있었다(김순, 2019; 이용재, 이지욱, 2020). 하지만 부실 학술지 관련 업무가 비활성화된 참여자 1, 2의 경우 업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개별 도서관의 상황과 업무영역의 모호성, 연구파트너로서의 인식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역량이 있는 연구자들도, 학교도 관심도 많아야 되고, 관심 있는 사서도 있어야 되고요. 지지해주는 팀장님도 필요해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근데 없죠. 실질적으로 사서가 하는 일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참여자 2)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도서관에서 부실 학술지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효용성과는 별개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도서관은 대학 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부실 학술지 판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Zhao, 2014; Wiratningsih, 2018).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참여자 1, 2도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은 수서나 기기 지원 등 대중적인 서비스를 우선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도서관의 미래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이 논문 지도나 연구 윤리 교육을 통해 부실 학술 활동을 다루고, 이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역할과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되었다(최예진 외, 2023).

참여자 4는 '필요할 때 업무를 제공하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아니더라도

도 미래에 도서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의 효용성을 고려했을 때, 부실 학술지 업무를 당장 연구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도서관에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보았다.

4.1.8 사서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

그렇다면 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력자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자체 기준을 세우는 기술적 역량이 필요했다. 그리고 참여자들 모두 사서들이 이러한 역량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Wiegand, 2013). 실제로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참여자 3, 4, 5)은 문의받은 학술지를 검토하며 ISSN의 일치 여부, 홈페이지 정보의 정확성, IF 지수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참여자 4는 논문과 SNS 등 다양한 경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실 학술지 판별을 위한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그는 리스트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에서 객관적 정보를 꾸준히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이야말로 사서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참여자 3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사서

개개인의 연구 경험과 상관없이(Buitrago-Ciro, 2022)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부실 학술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 도서관이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및 데이터 정제 능력을 필요로 한 단 점에서 사서들은 이미 관련 기술적 역량을 갖췄단 뜻이었다(엄영애, 이두이, 2006).

다만 현재 부실 학술지 업무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참여자 3, 4, 5)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모두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부실 의심 학술지의 범람으로 인한 판단기준의 모호함, 서비스의 효용성의 문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상담보다는, 부실 학술지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수준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게 습득해서 요청이 있을 때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차원, 계속 그 정도 선에서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큰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5)

4.1.9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원정책

참여자들은 대학도서관이 현실적으로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는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이며, 둘째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 및 국가 차원의 외부 지원이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서들이 부실 학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 관련 지식수준 조사에서는 평균 2.72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홍명아, 심원식, 2024b). 특히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참여자들(참여자 1, 2)은 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Buitrago-Ciro, 2022), OA 출판 및 학술지 투고 시스템에 대한 선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논문을 안 써 본 사서들이 많아요. 학술지에 어떻게 투고하는지,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논문을 투고하고 평가받고 출판이 되는지, 전체 과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2)

부실 학술지 업무 제공을 위한 외부 지원은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과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나뉘었다. 대학 차원에는 세미나 참석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참여자 2, 3).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세미나를 위한 출장에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에 기관에서 사서의 세미나 참석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 또한 인력 부족도 세미나 참석을 제약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서들이 능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은 세미나 참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실히 세미나는 전반적인 트랜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백업 업무를 해주는 분이 없고, 출장비를 줄 여력이 없는 학교들은 출장을 보내지 않기도 하거든요. 가면 얼마나 배우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세미나 참석 기회를 좀 더 열어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3)

또한, 대학의 부실 학술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강조되었다(참여자 1, 4, 5). 아무리 사서가 부실 학술지 업무를 제공한다고 해도 대학의 관심이 없으면 업무가 활성화될 수 없었다. 강한 징계 없이 사후처방만 하려니 부실 학술지 업무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다(참여자 5). 따라서 대학은 계속 부실 학술활동을 경계하고 연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Jeffrey Beall 또한 더 많은 학자가 해당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Beall, 2012).

국가적인 지원의 방안은 교육,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식적인 정책 마련 및 부실 학술지 리스트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참여자 1, 4, 5)는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리스트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찬성했지만, 다른 이들(참여자 2, 3)은 리스트가 과연 학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자들이 직접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SAFE의 부실 학술지 리스트 사례도 논의되었다. SAFE는 2022년까지 학술지 목록에 대해 ‘주의’, ‘논쟁 중’ 등의 표시를 했으나, 연구자들의 비판에 따라 2023년부터 표시를 없앴다(홍명아, 심원식, 2024a). 따라서 반대 측은 SAFE도 유명무실해졌는데 국가 차원의 리스트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참여자 2, 3). 그러나 찬성 측은 외국 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리스트가 예산과 시간 투자 대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참여자 4, 5). 참여자 5는 부실 학술지 블랙리스트 게시와 같은 부정적 조치가 국가 차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학술 환경에

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실 학술지 리스트에 대한 의견은 나뉘었지만, 참여자 모두 국가가 예방 차원에서 부실 학술지 문제를 다루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예를 들어 연구제안서 작성 시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자연스럽게 부실 학술지를 피하도록 유도하거나 애시당초 배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4.1.10 부실 의심 학술지의 범람과 동료심사의 변화 필요성

일부 참여자들은(참여자 4, 5) 부실 학술지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와 대비해 부실 의심 학술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초창기에는 주로 위조 또는 가짜 IF 등의 잘못된 매트릭스를 가진 학술지, 저명한 학술지로 위장한 학술지와 같은 약탈적 학술지였기 때문에 (Beall, 2015) 판별이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 의심 학술지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 학술지와 신생 OA 학술지를 구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었다(참여자 4). 신생 학술지는 미완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실 의심 학술지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부실 의심 학술지의 범위와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판별기준이 더욱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부실 학술지 판별의 모호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참여자(참여자 1, 3, 4, 5)는 MDPI의 의문스러운 출판관행(Nelhans & Bodin, 2020)

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사인 Stefan Tochev가 한국을 방문해 부실 출판사란 오해를 해명했던 일¹⁾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참여자 1, 5). 이들은 지속적으로 부실 의심 학술지를 경계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MDPI와 같은 부실 의심 학술지의 존재가 오히려 약탈적 학술지로 인한 혼란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했다.

계속 경고를 쥐도 들어가더라고요. MDPI가 커져서 오히려 거기가 기준점이 되니깐. 그것보다도 APC는 적고 동료심사는 더 빠른 데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참여자 4)

일부 참여자들(참여자 2, 3, 5)은 빠른 동료심사가 현재 학문 연구에 필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문 분야에 따라 동료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이은지 외, 2020), 현재의 출판 시스템은 과거보다 더 신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연구 트렌드 변화로 신속한 출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APC 지원 등으로 빠른 동료심사를 구현하려는 출판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참여자 2).

4.1.11 앞으로 학술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참여자들은 모두 부실 학술지 문제가 과도한 정량적 평가 위주의 대학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노영희 외, 2022),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실 학술지 논란을 비롯해, 학술생태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17493Y>

한편으로, 참여자 1은 결국, 부실 학술지 문제는 학술생태계를 악화시킨 원인이 아니라 그 증상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모든 학교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참여자 4, 5)은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연구자들의 자정 노력과 윤리적 자세를 강조했다.

또한, 참여자들(참여자 1, 2, 4)은 부실 학술지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도서관과 학술생태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AI의 발전과 함께 챗GPT 대필 논문 등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부실 학술지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이를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로(참여자 1, 4), 도서관은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계기로(참여자 2, 3, 4, 5) 작용했다고 인식했다.

고요한 강에 돌덩이를 던져서,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파도가 출렁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술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참여자 2)

4.2 의미구조 통합 및 패턴 파악

마지막 단계로서 하위 의미 범주를 통합하고 의미 구조 속 패턴을 파악해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학술지 관련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도출한 하위 의미 범주들을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서에 대한 인식’, ‘노력 대비 얻는 서비스 효용성’, ‘사서가 바라보는 도서관의 미래 서비스’, ‘학술생태계에

울리는 경종’으로 통합하였다. 통합한 의미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실 학술지의 판별은 연구자들 조차 합의된 기준이 없을 정도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Teixeira da Silva & Tsigaris,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조력자에 불과한 사서가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로서, 자칫 연구자의 실적에 개입될 우려도 있다. 부실 학술지 서비스는 연구윤리 영역(이용재, 이지숙, 2020)에 속하거나, 또는 연구지원 영역에 속하는 서비스로, 연구지원서비스가 잘 마련된 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에만 집중하는 도서관에서는 사서 개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기준 관행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김갑선, 2012). 또한 대학 구성원들은 사서를 단순히 대출·반납과 같은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이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었다(윤명희, 2020; 이선애, 2024). 그러나 사서가 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김갑선, 2012), 대학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서를 전문가로서 재인식시키고 관련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최예진 외, 2023). 이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경험 속에서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이 사서의 정체성과 서비스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맥락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대학 내 도서관의 역할이 주변부로 인식되는 현실은(김갑선, 2012) 부실 학술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초기와 비교해 부실 의심 학술지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 학술지 판별기준은 점점 더 모

호해지고 논란 또한 많아졌다(이인재, 2022; 남기곤 외, 2023).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서 개인에게 지대한 노력과 열정이 요구되었지만(김갑선, 2012), 모든 사서가 이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더불어, 부실 학술지 업무는 높은 열정과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시급성이 부족하고 이용률도 낮다는 점에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서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연구자가 필요할 때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최종 판단은 연구자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서가 부실 학술지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이호신, 2012). 결국 이처럼 사서들이 느끼는 ‘들이는 노력 대비 얻는 부실 학술지 서비스의 효용성 인식’ 수준은 업무 수행 의지에 차이를 만들었다.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에 집중하거나(참여자 1, 2), 반대로 열정을 투입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참여자 3, 4, 5).

세 번째, 사서들은 도서관이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연구지원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실 학술지 서비스 또한 ‘도서관 미래 서비스’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실 학술지 업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판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이미 사서들이 일정 부분 확보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서비스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은 관련 기술과 역량을 사전에 강화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필요하고, 또 사서들이 잘 할 수 있는 부실 학술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대학이 도서관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식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참석을 지원하는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최예진 외, 2023).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블랙리스트 구축 등 공신력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부실 학술지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사서들은 부실 의심 학술지의 빠른 동료심사 및 출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는 부실 학술지의 기준을 둘러싼 연구자들의 논란(홍명아, 심원식, 2024a)과 이의 바탕이 되는 학술논문 심사체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현재 학계의 과도한 정량적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였고, AI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학술생태계에 나타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실 학술지 문제는 단순히 학술생태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술생태계에 올리는 경종’으로 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연구자들의 협력자이자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학술생태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Thomas, 2013).

위와 같이 부실 학술지 및 연구지원서비스 경험을 통해 도출된 연구참여자들의 의미 구조는 결국 ‘사서 개인이 가진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각 사서의 주

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은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쳐, 연구지원서비스를 확장할지(참여자 3, 4, 5) 아니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서비스에 집중할지(참여자 1, 2)를 결정하게 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부실 학술지 서비스의 효용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한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참여자 3, 4, 5), 아니면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지(참여자 2), 또는 앞으로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지(참여자 1)에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이러한 정체성은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든 아니든, 도서관이 앞으로 제공 가능한 미래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하게 했으며, 학술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학술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로 작용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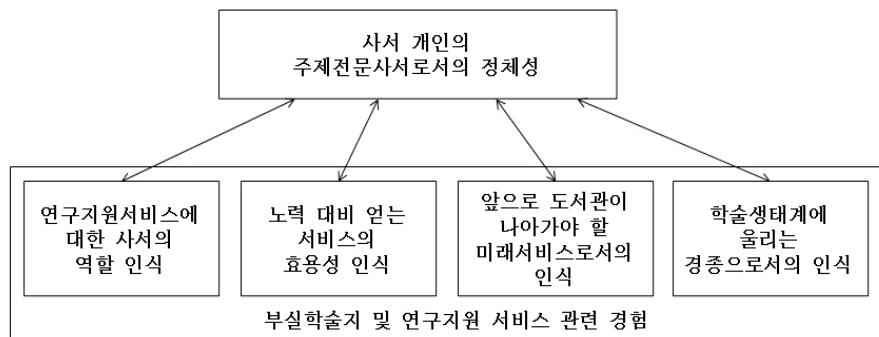
5. 결 론

본 연구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사서들의

경험을 탐구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인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을 가진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Giorgi, A. (1970)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과 해석적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조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경험은 그들이 인식하는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부실 학술지 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서의 역할 수준’을 고려했고,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의 수준’을 평가했다. 또한, 부실 학술지 서비스가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따른 미래 서비스’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으며, 마지막으로 학술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부실 학술지 문제를 다른 학술생태계의 문제들과 연결 지으며 이를 ‘학술생태계에 올리는 경종’으로 표현하고, 연구자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궁극적으로 개별 사서



<그림 2> 부실 학술지 경험의 본질적 의미 구조

가 가진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할수록, 부실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발전 도모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참여자 3, 4, 5). 반면, 사서의 전문성 인식 부족과 부실 학술지 업무 자체가 가진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사서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업무에 충실히하면서 추후를 기다리는 대인 관계 전략(참여자 1)이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에 집중하는 슬럼프 및 위기 대응 전략(참여자 2)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부실 학술지와 관련된 사서들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서비스 가치관을 넘어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학술지와 관련한 다양

한 인식 수준이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닌,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이 부실 학술지 서비스 제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지원서비스를 비롯한 도서관의 미래 서비스 제공 시 개별 사서의 정체성이 해당 서비스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4년제 대학도서관 사서 5명을 대상으로 한 만큼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 많은 유형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학술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부실 학술지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34호.

김갑선 (2012). 사서의 직업사회화 과정-질적 다방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157-178.

<http://doi.org/10.16981/kliss.43.2.201206.157>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208-1220.

<https://dx.doi.org/10.4040/jkan.1999.29.6.1208>

김순 (2019). 오픈 사이언스 시대에 대비한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정보 관리학회지*, 36(1), 7-3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007>

김용환, 강지혜, 이종욱, 노영희 (2022).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대학 교수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 지, 56(4), 309-333. <http://doi.org/10.4275/KSLIS.2022.56.4.309>
- 남기곤, 허정, 권은화, 김명진, 임은주, 정혜진 (2023). 누가 MDP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까?: 2018~2020년 한국 대학 교수들의 논문 실적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포럼*, 16(3), 47-84.
<https://doi.org/10.22841/kefdoi.2023.16.3.003>
- 남영준, 김희선 (2012).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연구지원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36-39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369>
- 노영희, 강지혜, 김용환, 양정모, 이종욱 (2022). 학술 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업적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4), 93-114.
<https://www.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 노영희, 심효정 (2023). 사서의 핵심가치 제안과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123-150. <http://doi.org/10.4275/KSLIS.2023.57.2.123>
- 엄영애, 이두이 (2006). 대학도서관의 연구지원 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161-180.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명희 (2020). 공공도서관 사서직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43-275.
<http://doi.org/10.4275/KSLIS.2020.54.1.243>
- 이선애 (2024). 대학도서관 사서 직업에 대한 경험적 의미와 딜레마: Giorgi의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관리학회지*, 41(2), 353-37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353>
- 이시영 (2010). 대학도서관 사서의 위기와 대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47-67.
<http://doi.org/10.16981/kliss.41.3.201009.47>
- 이용재, 이지우 (2020). 국내 대학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의 현단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305-327. <http://doi.org/10.16981/kliss.51.1.202003.305>
- 이은지, 김혜선, 남은경, 김완종 (2020). 부실 의심 학술지 식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해외 출판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7(4), 109-130.
<http://doi.org/10.3743/KOSIM.2020.37.4.109>
- 이인재 (2022). 부실학술활동 예방. *감정평가학논집*, 21(3), 191-208.
- 이혜영 (2023). 의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의학사서 교육프로그램 비교 및 분석: MLA 및 KMLA를 중심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 50(1,2), 19-38.
https://doi.org/10.69528/jkmla.2023.50.1_2.19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ttps://www.doi.org/10.23185/skku.000000028682.11040.0010611>
- 이효빈, 김해도, 김소형, 천기우, 신정범 (2019).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대책(ISSUE REPORT 2019-1호). 대전: 한국연구재단(NRF).

- 장덕현 (2015). 대학도서관 장서개발담당 사서의 전문성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27-244. <http://doi.org/10.16981/kliss.46.4.201512.227>
- 정경희 (2012).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에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 COPE 참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6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045>
- 최예진, 나민경, 이지연 (2023). 대학도서관 교수·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서 인식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2), 51-77. <http://doi.org/10.4275/KSLIS.2023.57.2.051>
- 최홍식 (2012).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03-319. <http://dx.doi.org/10.16981/kliss.43.1.201203.303>
- 한국연구재단(NRF) (2023).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대전: 한국연구재단.
출처: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o_menu_no=&page=1&nnts_no=209793&nnts_cat=&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ECC%97%B0%EA%B5%AC%EC%9C%A4%EB%A6%AC&nnts_cat=
- 홍명아, 심원식 (2024a). 국내 연구자 커뮤니티 구성원의 부실 학술지 인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2), 97-130.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097>
- 홍명아, 심원식 (2024b). 대학도서관 사서의 부실 의심 학술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3), 33-61. <https://doi.org/10.3743/KOSIM.2024.41.3.033>
- Aboyade, W. A., Ndubuisi-Okoh, E. O., Okoche, C., & Oladokun, B. D. (2024). Impact of predatory journal publishing on scholarly practices among academic librarians in Nigeria: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Seminars in Medical Writing and Education*, 3, 60. <https://doi.org/10.56294/mw202460>
- Beall, J. (2012). Predatory publishers and opportunities for scholarly societies. 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eeting, 8-10. Available: <http://eprints.rclis.org/18044/>
- Beall, J. (2015, January 1). Criteria for determining predatory open-access publishers. Available: <https://beallslist.net/wp-content/uploads/2019/12/criteria-2015.pdf>
- Bouter, L. (2024). Fake academic papers are on the rise: why they're a danger and how to stop them. Available: <https://world.edu/fake-academic-papers-are-on-the-rise-why-theyre-a-danger-and-how-to-stop-them/>
- Brantley, S., Bruns, T. A., & Duffin, K. I. (2017). Librarians in transition: scholarly communication support as a developing core competency. *Journal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anship*, 29(3), 137-150. <https://doi.org/10.1080/1941126X.2017.1340718>
- Buitrago-Ciro, J. & Bowker, L. (2020). Investigating academic library responses to predatory

- publishing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panish-speaking Latin America.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72(4), 625-652. <https://doi.org/10.1108/AJIM-03-2020-0089>
- Buitrago-Ciro, J. (2022). How are academic libraries in Spanish-speaking Latin America responding to new models of scholarly communication and predatory publishing?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4(3), 373-388. <https://doi.org/10.1177/09610006211016533>
- Cohen, A. J., Patino, G., Kamal, P., Ndoye, M., Tresh, A., Mena, J., Butler, C., Washington S., & Breyer, B. N. (2019). Perspectives from authors and editors in the biomedical disciplines on predatory journals: Survey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1(8), e13769. <https://www.jmir.org/2019/8/e13769>
- Crosetto, P. (2021, April 12). Is MDPI a predatory publisher?. Available: <https://paolocrosetto.wordpress.com/2021/04/12/is-mdpi-a-predatory-publisher/>.
- Dony, C., Raskinet, M., Renaville, F., Simon, S., & Thirion, P. (2020). How reliable and useful is Cabell's Blacklist ? A data-driven analysis. *Liber Quarterly*, 30(1), 1-38. <https://doi.org/10.18352/lq.10339>
- Elmore, S. A. & Weston, E. H. (2020). Predatory journals: what they are and how to avoid Them. *Toxicol Pathol*, 48(4), 607-610. <https://doi.org/10.1177/0192623320920209>
- Giorgi, A. & Giorgi, B. (2003).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Camic, P. M., Rhodes, J. E., & Yardley, L.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43-273. <https://doi.org/10.1037/10595-013>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Harper & Row.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8(2), 235-260. <https://doi.org/10.1163/156916297X00103>
- Gubrium, J. F. & Holstein, J. A. (1997). *The New Language of Qualitative Method*. Oxford University Press.
- Inter Academy Partnership (2022, March). Combatting predatory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Available: <https://www.interacademies.org/project/predatorypublishing>
- Klain-Gabbay, L. & Shoham, S. (2018).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academic library: Perceptions and recent developments. IntechOpen. <https://doi.org/10.5772/intechopen.82075>
- Knoblich, G. & Sebanz, N. (2006). The social nature of perception and ac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5(1), 21-25. <https://doi.org/10.1111/j.1467-9297.2006.00402.x>

- in Psychological Science, 15(3), 99-104.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6.00415.x>
- Kurt, S. (2018). Why do authors publish in predatory journals?. Learned Publishing, 31(2), 141-147. <https://doi.org/10.1002/leap.1150>
- Langdridge, D. (2007).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Method. Harlow, UK: Pearson Education.
- Lester, S. (1999).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research. Stan Lester Developments. Available: <https://devmts.org.uk/resmethyl.pdf>
- McQueen, L. & Zimmerman, L. (2006). Using the interpretive narrative research method in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jects. J Nurs Educ, 45(11), 475-8. <https://doi.org/10.3928/01484834-20061101-09>
- Mertkan, S., Aliusta, G. O., & Suphi, N. (2021). Profile of authors publishing in 'predatory' journals and causal factors behind their decision: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Evaluation, 30(4), 470-483. <https://doi.org/10.1093/reseval/rvab032>
- Nelhans, G. & Bodin, T. (2020).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identifying questionable publishing in a national context: The case of Swedish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Quantitative Science Studies, 1(2), 505-524. https://doi.org/10.1162/qss_a_00033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Teixeira da Silva, J. A. & Tsigaris, P. (2018). What value do journal whitelists and blacklists have in academia?.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4(6), 781-792. <https://doi.org/10.1016/j.acalib.2018.09.017>
- Teixeira da Silva, J. A. (2013). Predatory publishing: A quantitative assessment, the predatory score. The Asian and Australasian Journal of Plant Science and Biotechnology, 7, 21-34.
- Thomas, W. (2013). The structure of scholarly communications within academic libraries. Serials Review, 39, 167-171. <https://doi.org/10.1016/j.serrev.2013.07.003>
- Wallace, W. A. (2019). Publish and be damned: the damage being created by predatory publishing. Bone Joint J, 101-B(5), 500-501. <https://doi.org/10.1302/0301-620X.101B5.BJJ-2018-1330.R1>
- Wiegand, S. (2013). Beginning the conversation: discussing scholarly communication. The Serials Librarian, 65(3-4), 335-349. <https://doi.org/10.1080/0361526X.2013.833883>
- Wiratningsih, R. (2018). Library clinic services in avoiding transaction in the predatory journal. Library Management, 39(1/2), 21-30. <https://doi.org/10.1108/LM-02-2017-0023>
- Yi, H. J. (2017). Introduction of S2Journal for the aggregation of journal information. Science

- Editing, 4(2), 89-92. <https://doi.org/10.6087/kcse.102>
- Zhao, L. (2014). Riding the wave of open access: providing library research support for scholarly publishing literacy.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45(1), 3-18. <https://doi.org/10.1080/00048623.2014.88287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 Hyun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227-244. <http://doi.org/10.16981/kliss.46.4.201512.227>
- Choi, Hung-Sik (2012). A study of reconsideration for users in the subject-special librarian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03-319. <http://dx.doi.org/10.16981/kliss.43.1.201203.303>
- Choi, Ye Jin, Na, MinKyung, & Lee, Jeeyeon (2023). Analysis of librarians' percep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ervices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51-77. <http://doi.org/10.4275/KSLIS.2023.57.2.051>
-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ov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35134.
- Hong, Myoung-A & Shim, Won Sik (2024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edatory journals among members of the Korea researcher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97-130.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097>
- Hong, Myoung-A & Shim, Won Sik (2024b). An exploratory study on academic librarians' perception of predator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3), 33-61. <http://doi.org/10.3743/KOSIM.2024.41.3.033>
- Joung, Kyoung Hee (2012). A study on the roles of academic libraries for open access journal publishing: focusing on the academic libraries participated in COP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6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045>
- Kim, Boon Han, Kim, Keum Ja, Park, In Sook, Lee, Keum Jae, Kim, Jin Kyung, Hong, Jeong Ju, Lee, Mi Whang, Kim, Young Hee, & Yoo, In Young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9(6), 1208-1220. <https://dx.doi.org/10.4040/jkan.1999.29.6.1208>

- Kim, Kapseon (2012). Occupational socialization process of librarians: a aualitative multimethod stud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157-178.
<http://doi.org/10.16981/kliss.43.2.201206.157>
- Kim, Soon (2019). University library's new research support service focusing on scholarly communication in open science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7-30.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007>
- Kim, Yong hwan, Kang, Ji hei, Lee, Jongwook, Noh, Younghhee (2022). A study on faculty perception of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309-333. <http://doi.org/10.4275/KSLIS.2022.56.4.309>
- Lee, Eun Jee, Kim, Hyesun, Nam, Eunkyung, & Kim, Wan Jong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ecklist for identifying the predatory journals published abroa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4), 109-130.
<http://doi.org/10.3743/KOSIM.2020.37.4.109>
- Lee, Hosin (2012). Narrative inquir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ubject.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https://www.doi.org/10.23185/skku.000000028682.11040.0010611>
- Lee, hyobin, Kim, haedo, Kim, so-hyeong, Chun, gi-woo, & Shin, jeongbeom (2019). Key features and preventive measures of poor academic activities(Issue Report No. 2019-1). Daeje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Lee, In Jae (2022). Preventing submissions to fake and predatory journals and conferences. *Appraisal Studies*, 21(3), 191-208.
- Lee, Si-Young (2010). Crisis and response of librarians at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47-67.
<http://doi.org/10.16981/kliss.41.3.201009.47>
- Lee, Sun-Ae (2024). Empirical meanings and dilemmas of the profession of an academic librarian: Apply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353-374. <https://doi.org/10.3743/KOSIM.2024.41.2.353>
- Lee, Yong Jae & Lee, Ji-Wook (2020).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of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academic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305-327. <http://doi.org/10.16981/kliss.51.1.202003.305>
- Nam, Kigon, Her, Jung, Kwon, Eunhwa, Kim, Myeongjin, Lim, Eunju, & Jung, Hyejin (2023). Who has published papers in MDPI journals?: analysis on the research performance of Korean university professors in 2018-2020. *The Korean Economic Forum*, 16(3), 47-84. <https://doi.org/10.22841/kefdoi.2023.16.3.003>

- Nam, Young-Joon & Kim, Hee-Sun (2012).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cademic library users on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36-390.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369>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2023). 2022 University Research Ethics Survey Report. Daeje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vailable: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o_menu_no=&page=1&nnts_no=209793&nnts_cat=&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EC%97%BC%EA%B5%AC%EC%9C%A4%EB%A6%AC&nnts_cat=
- Noh, Younghée & Sim, Hyo-Jung (2023). A study on the proposal of core values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2), 123-150. <http://doi.org/10.4275/KSLIS.2023.57.2.123>
- Noh, Younghée, Kang, Ji Hei, Kim, Yong Hwan, Yang, Jeong-Mo, & Lee, Jongwook (2022).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for enhancing the soundness of academic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4), 93-114. <https://www.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 Rhee, Hey-Young (2023). Comparison and analysis of medical librarian training programs for medical library user services: focusing on MLA and KMLA. *Journal of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50(1,2), 19-38. https://doi.org/10.69528/jkmla.2023.50.1_2.19
- Ryu, Kiung, Jeong, Jong-won, Kim, Youngseok & Kim, Han-beol (2018).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 Young-sa
- Um, Young-Ai & Lee, Du-Yi (2006). A study on the services for research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161-180.
- Yoon, Myung-Hee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brarianship professionalism in Korea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243-275. <http://doi.org/10.4275/KSLIS.2020.54.1.243>

